
第118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3月3日(金) 午後2時 開式

第118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議事擔當官 李錫和)

(14時 09分 開式)

○議事擔當官 李錫和; 지금부터 제118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崔鍾午 議長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崔鍾午; 존경하는 高建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최근 몇 년에 비하여 추위가 기승을 부렸고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그 겨울이 물러가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화창한 봄날에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자리를 함께하여 제11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울 시의 새천년 새서울가꾸기 사업과 부조리 척결을 핵심과제로 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실천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접한 의견과 피부로 느꼈던 문제점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 하나 하나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정이 도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높여 가면서 21세기 지구촌시대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에 발생했던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하공동구에는 전력선, 전화선,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 국가의 동맥이 집중되어 있어 사고발생시의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주말에 발생하였기에 피해가 비교적 적었으나 만약 주중에 사고가 났다면 우리 나라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여의도 금융증권가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의 지진, 소방, 가스 등과 관련된 도시 종합 방재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아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현장확인 행정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IMF체제가 극복되어 가고 있다고 하나 부익부빈익빈의 사회구조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이고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ASEM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앞으로 서울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한국적이며 세계인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국제문화 예술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마음껏 즐기고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행정은 청소년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권리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의원 한분 한분이 일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활기찬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118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李錫和;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特別市議會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19分 閉式)